OSCOTEC
NDR Materials

2026.11

Translating Science into Medicine

Oscotec Inc.

Agenda

1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원칙 및 주주가치 제고

3 2026년 3분기 실적

Appendix

R&D 비전 | 내성 극복과 안전성 강화로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Oncology 기업

비전

내성 극복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Oncology 기업

R&D 지향점

원천 내성차단형 4세대 항내성항암제

암세포가 **내성을 획득하기 전** 근본 원인을 차단해 **암의 재발을 억제**, 기존 항암제의 지속성 한계를 해결

ADC[1]와 TPD[2]의 융합으로 부작용을 낮춰 안전성을 강화한 차세대 DAC[3] 플랫폼

약물이 암세포에서만 작용하도록 3단계 안전장치를 탑재, 정상세포 **독성을 최소화**하여 기존 ADC부작용 한계 극복

핵심 역량 및 강점

차세대 혁신 기술력

- ✓ 국내 최초 美FDA 승인 항암제 Lazertinib 원천기술 개발 (기술평가등급 AA[4])
- ✓ 세계 최초 내성 특화 Hit & Target Pair 발굴(ACART[5]) 플랫폼
- ✓ 차세대 DAC '3중 안전장치' 플랫폼
- ✓ 신규 파이프라인 10개 (새로운 기전의 혁신신약 (FIC[6]) 8개)

World-class R&D 인력

- ✓ 국내 Top-tier급 R&D 조직 보유 (총 44명 중, 39명의 석박사 전문인력; 3년 이내 R&D 인력 30명 증원 계획)
- ✓ 글로벌 리딩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톤 Ecosystem 활용 및 10명 이상의 국내외 전문가(KOL) 자문단 구축

Self-sustainable한 재무구조

- ✓ Lazertinib 로열티 및 현금여력 기반 안정적 R&D 수행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투자규율 강화
- ✓ 향후에도 1-2년에 1건 이상의 L/O 통해 건전한 재무구조 강화

1. Antibody Drug Conjugate; 2. Target Protein Degrader; 3. Degrader-Antibody Conjugate; 4. 기술평가에는 AAA~D의 열 가지 등급이 있으며 AA는 두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기술력이 동종기업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 AA이상은 전체의 6% 미만으로 매우 드묾, 본 사는 Lazertinib, GENO-K로 기술 평가를 받음 ;
5. 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6. First-in-Class

단계적 R&D 추진 전략 | 글로벌 상용화 매출과 1-2년 1건 이상 L/O로 단기 수익성, 중장기 혁신 지속성 및 안전성 확보

"내성 극복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Oncology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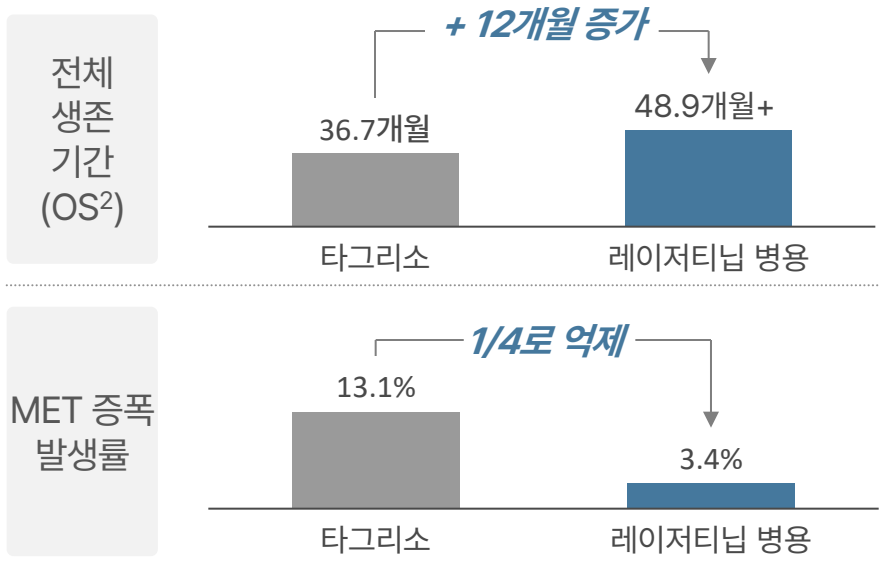
구분	역할/포지셔닝	세부 파이프라인	
초단기 제품/ 파이프라인	Lazertinib 글로벌 성공 및 self-sustainable 재무구조 정립	Lazertinib	폐암 항암제의 글로벌 판매를 통한 **안정적 현금 창출** • 성공적인 글로벌 항암신약 상용화 경험으로 신뢰 구축
		ADEL-Y01	알츠하이머 항체치료제(인지저하의 원인인 **Tau 단백질 근본 차단**) • 임상1상, '25년 12월 사노피에 L/O (총 $1.04B, 계약금 $80M)
		Cevidoplenib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면역혈소판감소증(ITP), 류마티스 관절염, 용혈성 빈혈 등) • ITP 임상2상 완료, '26년 6월 아지오스에 L/O (총 $665M, 계약금 $25M)
단기 파이프라인 ('26-'27년 L/O 목표)	추가 L/O통해 Self-sustainability 강화	GNS-3545	특발성 **폐섬유증** 표적치료제(섬유화와 염증을 동시에 억제) • 임상1상, L/O('27)를 통한 self sustainability 강화
		OCT-648	**신장 섬유화** FIC 표적치료제(섬유화 발생 직접적 억제) • 전임상, L/O('27)를 통한 self sustainability 강화
중장기 파이프라인 ('28년 이후 L/O 목표)	항암 치료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강화한 항내성항암제 및 DAC 전문 차세대 Oncology R&D Leader	항내성항암제 OCT-598/ONC1~3	원천 암세포 **내성차단형** 4세대 First In Class 항암제 • 고위험·고수익의 암종 및 타겟 확장 가능한 시장 기회 선점
		DAC DAC1~3/PKMYT1	3중 안전장치(Triple-lock) 기술 기반, 기존 ADC 대비 안전성 강화 • 검증된 기술 기반, 안정적 & 단기 수익화 지향

안정적 재무구조 확립

Lazertinib | 경상기술료 수취 본격화 & SC제형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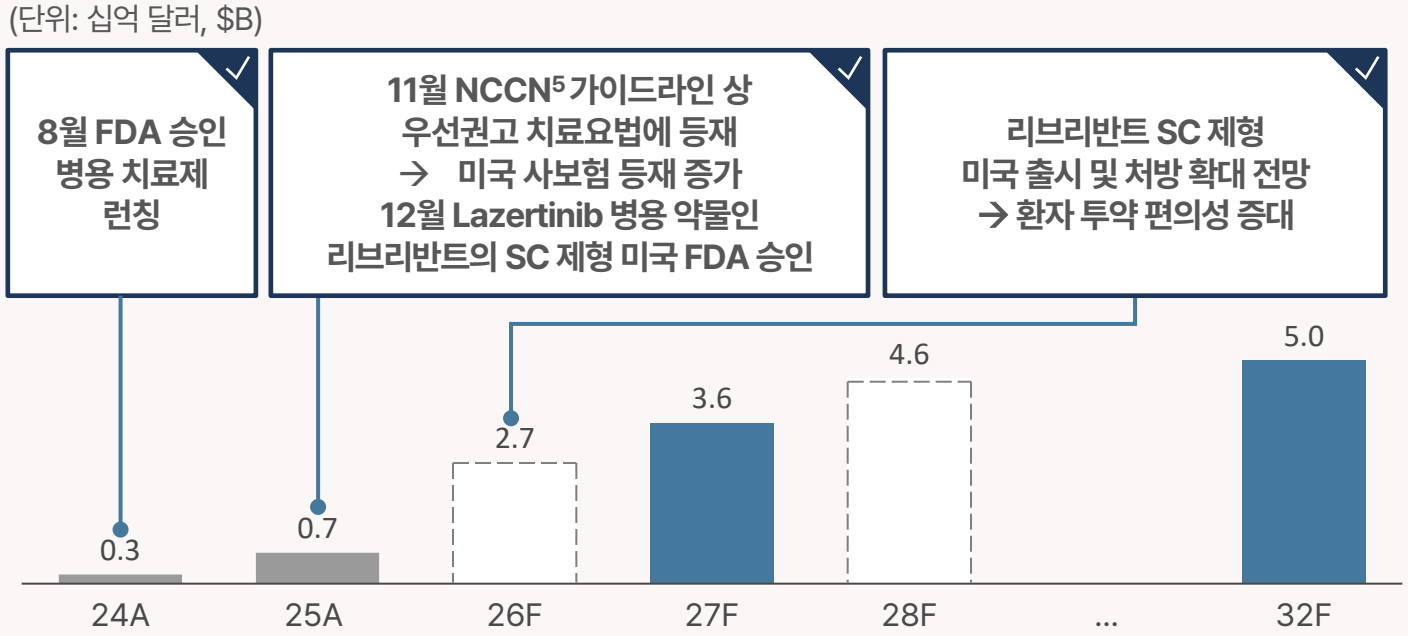
비소세포폐암 경쟁 약물 타그리소 대비 생존기간, 내성 관점에서 임상 결과 우수

Lazertinib 병용[1] vs 타그리소(경쟁약물) 단독 비교 임상 결과 (MARIPOSA 임상[3], ASCO 26 통해 CHRYSALIS-2 임상 업데이트)



Lazertinib 병용 약물의 SC 제형 상용화로 '26년 매출 본격화 시작, '32년 Peak Sales는 $5bn 전망

J&J Lazertinib 병용 매출 가이던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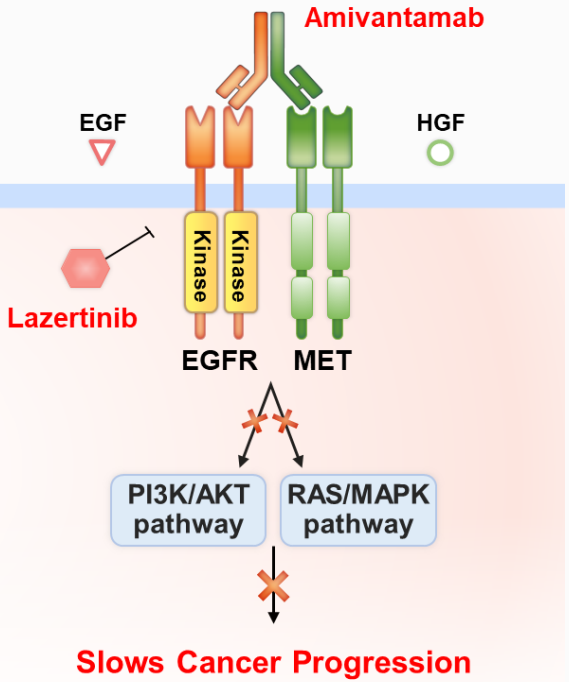


1. J&J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과 라즈클루즈(Lazertinib) 병용 투여 2. Overall Survival (치료 시작 시점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3. 후속 시험 포함하여 최종 예상 종료일은 2027~2028년; 4.'25년 SC제형 승인 이후 peak sales까지 7년 가정; 5.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미국종합암네트워크)로 NCCN 가이드라인은 미국 내 암 치료분야 내 권위있는 지침, 보험사는 암 치료 관련 약물·생물학제제 사용의 적절성 판단 시 NCCN의 가이드라인을 참고; Source: 회사자료, J&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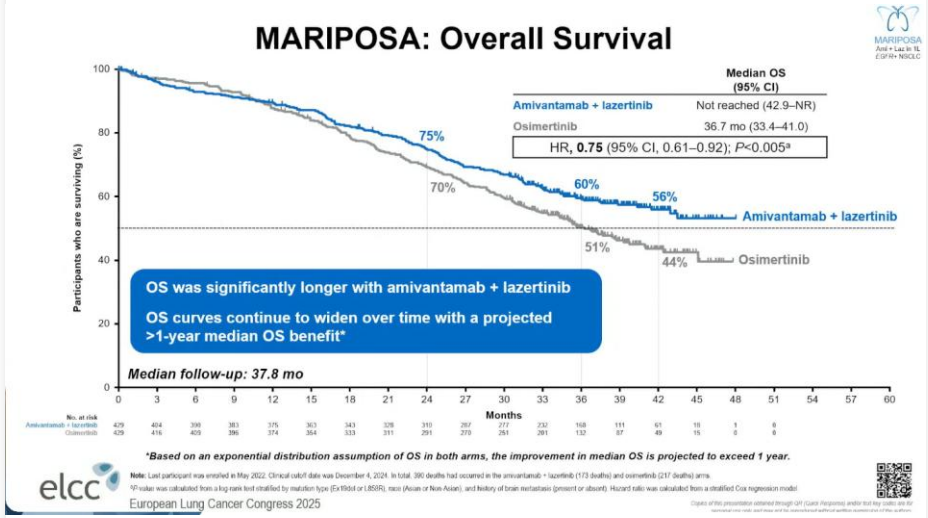
안정적 재무구조 확립

Lazertinib | Amivantamab 병용으로 Osimertinib 저항성 극복 및 OS 연장 >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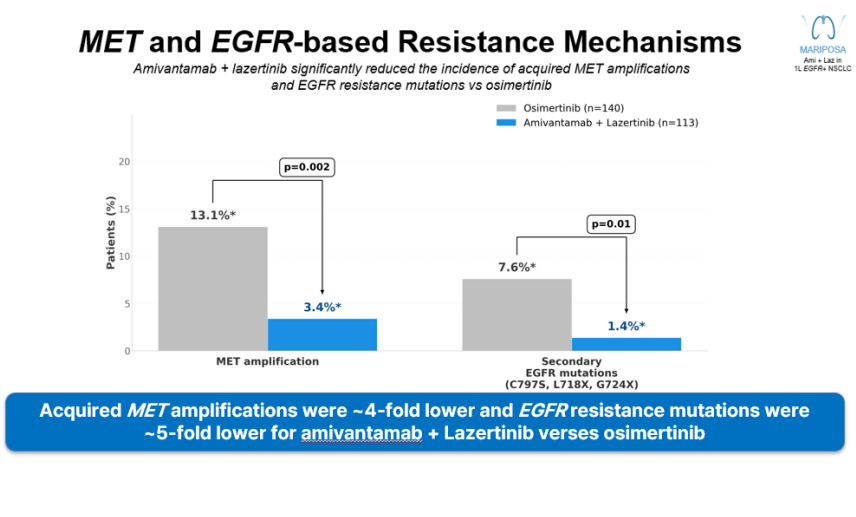
병용요법



전체생존기간 (OS) 유의미한 개선



내성기전의 실질적 억제



- Lazertinib + Amivantamab 병용요법: OS 48.9개월 이상, HR 0.75로 사망위험 25%감소
- Osimertinib 대비 생존곡선 격차가 시간 경과에 따라 확대

- Lazertinib 병용요법: Osimertinib 대비 MET 증폭 및 EGFR 2차 내성 (C797S, L718X, G724X)발생 억제
- EGFR/MET 동시 차단으로 내성 발생 자체를 억제 → 4세대 표적 필요 상황을 최소화

- USFDA: Lazertinib + Amivantamab 피하주사 승인 (2025년 12월) → 투여 편의성으로 향후 매출 증대 기여

Source: Hayashi H, et al. J Thorac Oncol. 2026; WCLC 2025 Abstract PT1.03.06 (updated analysis from MARIPOSA).
* Percentage based on patients with post-progression ctDNA analysis (n values as displayed per arm). nominal p values are unadjusted for multiplicity.

안정적 재무구조 확립

ADEL-Y01 | 2025년12월 사노피와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L/O 딜을 체결

"Lazertinib을 잇는 두번째 안정 수익 자원으로 자리매김 기대"

'25년 사노피와 1.5조원 규모의 L/O 계약 체결

파이프라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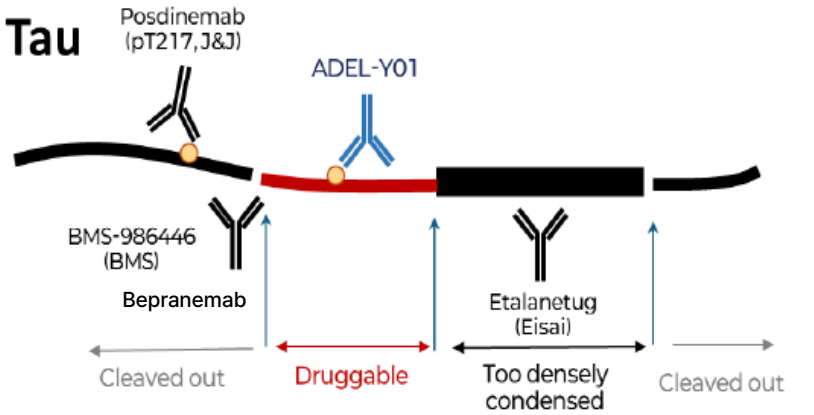
- 2020년 ADEL 社와 공동개발 계약 (후보물질 단계)
- 적응증: 알츠하이머
- 타겟: 타우 단백질
- Modality : 항체
- Stage : 임상 1b상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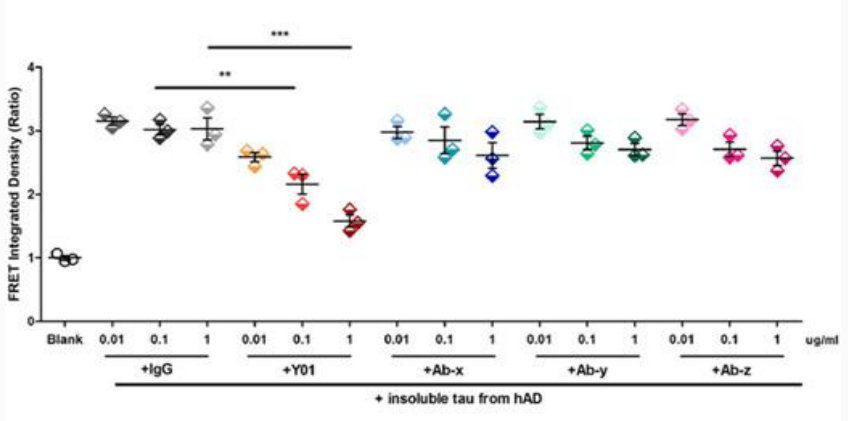
L/O 정보

- L/O 시점: '25년 4분기
- 상대회사 (Licensee): Sanofi
- 딜 규모 : 약 1.53조원 (upfront: 약 1,180억원)
- 공동개발 파트너; 아델
- 수익 배분율; 47% (오스코텍)

ADEL-Y01은 Tau 응집 중심부를 직접 표적해 병리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경쟁약물군	ADEL-Y01의 차별점
타 타우 항체 대비	**Tau 응집 중심부에 결합하여 병리 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 경쟁 물질은 Tau의 N말단 영역에 결합하여 질병 진행 억제능이 제한적 • ADEL-Y01은 임상 1상에서 경쟁사 比 우수한 Tau 응집 억제 효능 입증
기허가 아밀로이드 항체 대비 (레켐비, 키선라)	**Tau는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이 높아 Tau 타깃 치료제가 더 큰 임상적 효용 가능** • 아밀로이드는 질병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기허가 치료제는 효능 및 안전성에서 한계 노출 • Tau 축적이 실제 신경 사멸 및 인지저하를 유발하며, Tau 확산을 막는 것이 질병 진행 억제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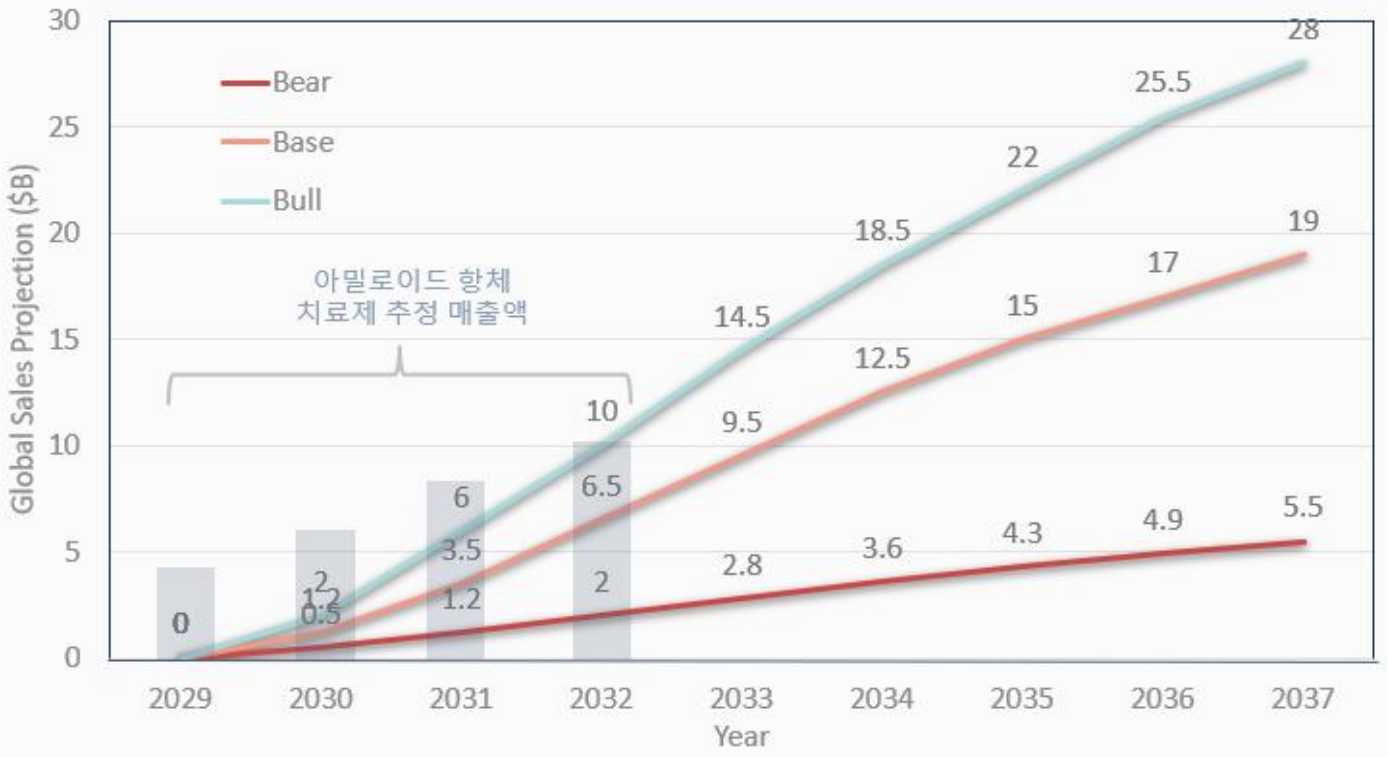


Source: GlobalData, 회사 자료

안정적 재무구조 확립

ADEL-Y01 | First- and Best-in-Class 가능한 타우 표적 차세대 알츠하이머 치료제

타우항체 시장은 임상 진행 결과에 따라 최근 알츠하이머 질환개선 (disease-modifying) 치료제로 허가받은 레켐비, 키선라 등의 아밀로이드 항체를 능가, 최대 40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계열 내 최초 및 최고 약물이 될 가능성
타우 항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잠재력

전망

- 출시 연도: 2030년
- 적응증: 경도인지장애 포함 초-중기 알츠하이머 병
- 적용법: 단독요법, 1차 치료제
- 차별성: 우월한 질환개선 효능 및 안전성
- 약가: 연간 $15,000 (bear) ~ $25,000 (bull)
- 출시 지역: 미국 유럽 일본 등 7대 시장
- Biologics S-curve 적용

근거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mentia – Fact Sheet*;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 *World Alzheimer Report*; Braak H. & Braak E., *Neuropathological stageing of Alzheimer-related changes*, *Acta Neuropathologica*; Jack C.R. et al., *NIA-AA Research Framework: Toward a biological definition of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 Dementia* (2018); *Tau 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cognitive decline in Alzheimer's disease*, *Nature Reviews Neurology* and *The Lancet Neurology* (review articles); Eisai Co., Ltd. & Biogen Inc., *Leqembi (lecanemab) product and pricing disclosures*; Institute for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ICER), *Alzheimer's Disease: Value Assessment Framework*; IQVIA Institute, *Global Medicine Spending and Usage Trends*; EvaluatePharma, *Pharmaceutical market forecasting and adoption methodology*.

안정적 재무구조 확립

Cevidoplenib | 2026년6월 아지오스와 총 약 1조 원 규모의 L/O 딜을 체결

"Lazertinib, ADEL-Y01을 잇는 세번째 안정 수익 자원으로 자리매김 기대"

'26년 아지오스(Agios)와 1조원 규모의 L/O 계약 체결

파이프라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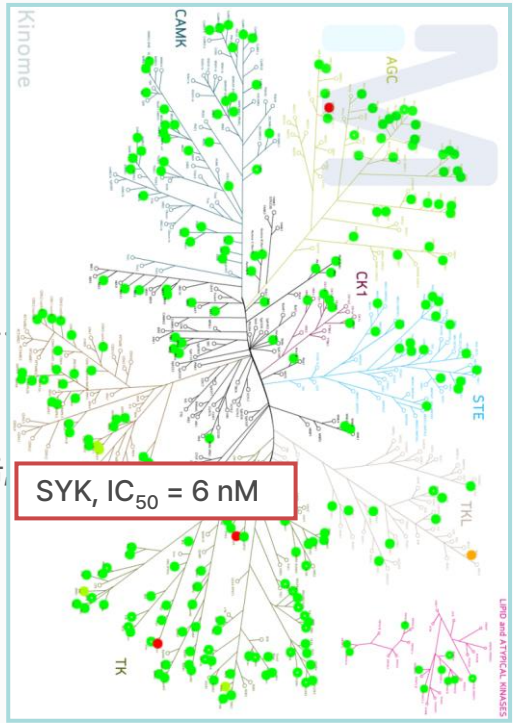
- 오스코텍 자체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단계)
- 적응증 :
  - ITP (면역혈소판 감소증)
  - RA (류마티스 관절염)
- 타겟: SYK
- Modality : 저분자화합물
- Stage : 글로벌 임상 2상 완료 (ITP)

L/O 정보

- L/O 시점: '26년 2분기
- 상대회사 (Licensee): Agios
- 딜 규모 : 약 1조원 (upfront: 약 375억원)
- 수익 배분율:
  - 75% 오스코텍, 25% 제노스코

만성 질환(ex. 자가면역질환)에 적합한 Target Product Profile: Safety First!
최상의 고객 만족도 추구 – 타협 없는 Kinase 선택성
임상에서 입증된 효능과 탁월한 안전성

	Cevidoplenib 차별점
Cevidoplenib	• 경구투여 가능한 면역질환 치료제 • 강력한 SYK 키나아제 저해제로 B 면역세포내 상위 신호전달 기능 억제 • **광범위한 자가면역질환치료제로 개발 가능** • **임상 1상에서 안전성 입증. 특이적 부작용 없음** • 류마티스 & ITP(면역혈소판감소증, 희귀질환) 임상 2상 완료 • ITP 적응증으로 orphan drug 지정 • Agios가 글로벌 개발·상업화 전담 • 추가 CMC 개발 후 1H28 ITP Phase 3 진입 계획
경쟁약물 Fostamatinib	• Rigel Pharmaceuticals • ITP 치료제로 FDA 승인(2018)된 유일한 SYK 저해제 • 부작용: 5% 이상 환자군에서 설사, 고혈압, 구토, 호흡기 감염, 어지러움, 간세포 손상, 홍조, 복통, 피로 • 부작용 원인: 불충분한 키나아제 선택성 • 적응증 확장 임상 시험 난항: 용량 증가 제한적 • 매출: 2,000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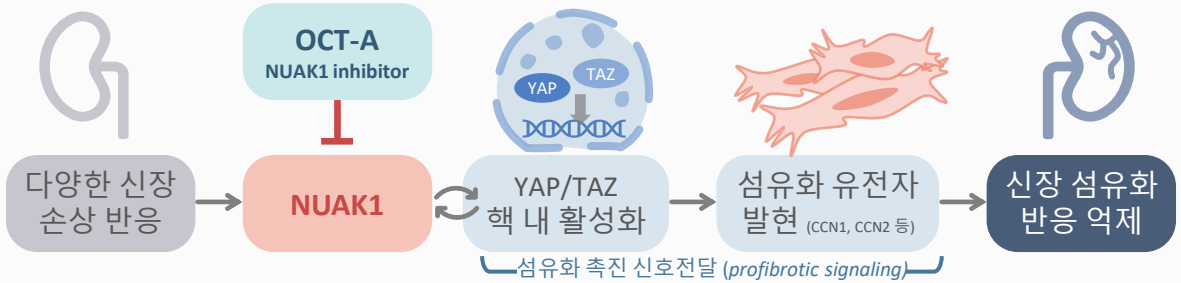


Source: GlobalData, 회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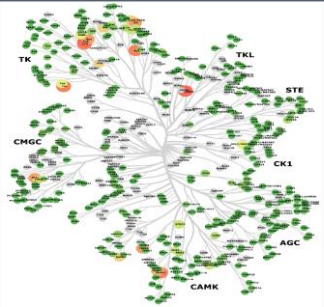
OCT-648 | First-in-Class 만성신부전(CKD)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

- 손상 (injury) 반응으로 유발하는 TGFβ 매개 YAP 유전자 핵내 활성화 기전 차단
- 강력한 NUAK1 키나아제 저해 효과
- 신장 손상 반응으로 유도되는 섬유화 반응 사전 차단
- **World-Best 선택성 확보 – Again, Safety First!**

선택적 NUAK1 저해를 통한 항섬유화 작용 기전



Kinome-wide 선택성 (OC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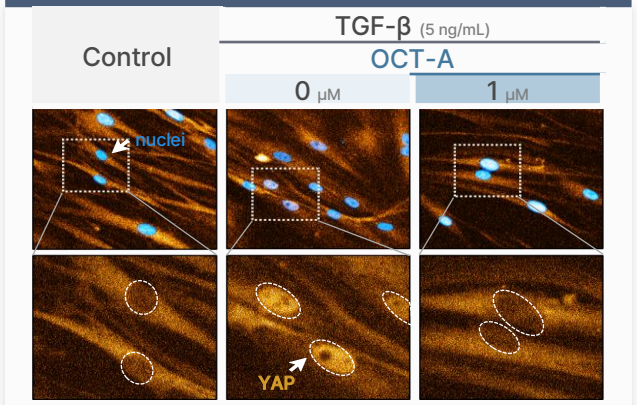


S_{10} = 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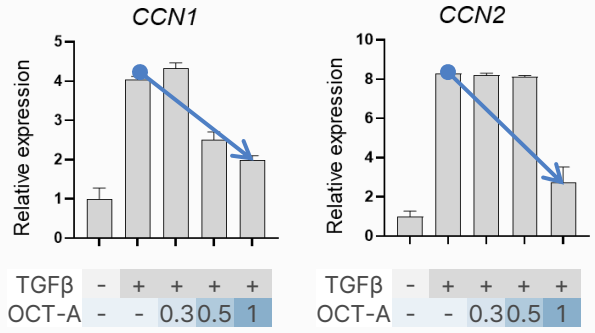
S_{50} = 0.048

☑ Full kinase panel (377 kinases)
☑ 1 μM con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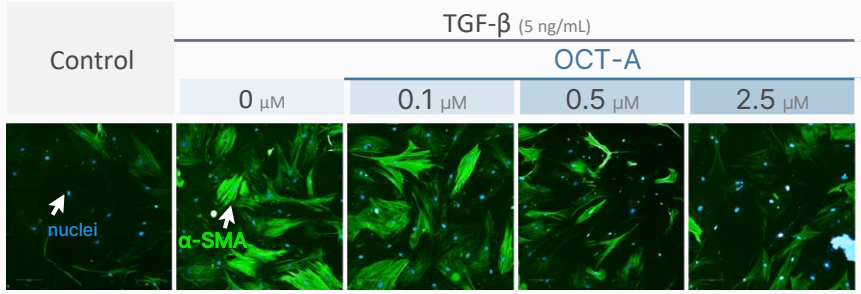
섬유화 유도 인자 YAP 핵 진입 차단



YAP 활성화 지표 유전자 발현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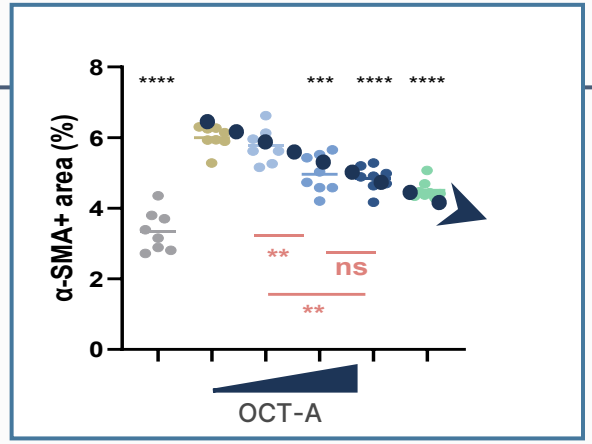


섬유화 반응 인자 발현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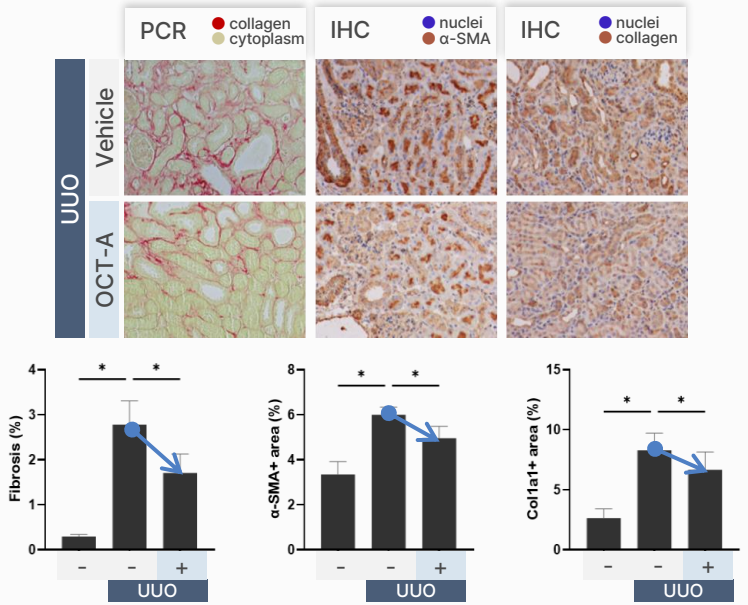


OCT-648 | First-in-Class 만성신부전(CKD)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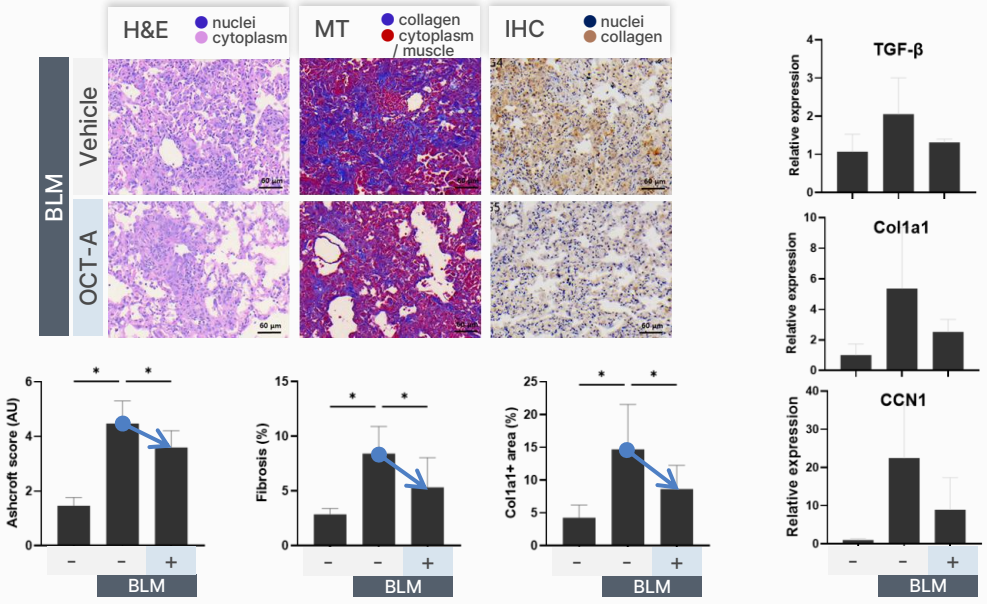
- 경구투여 가능한 CKD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 섬유화 지표 용량 의존적 개선
- 2026 2월 글로벌 빅파마 사업개발 미팅 개시
- 2026 3월말 요코하마 WCN 발표
- 2026 4월 세계적 신장학 석학인 Romagnani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 착수
- **타 섬유화 질환 적응증 확장 가능 – 탁월한 선택성**



신장 질환 모델: UUO-indu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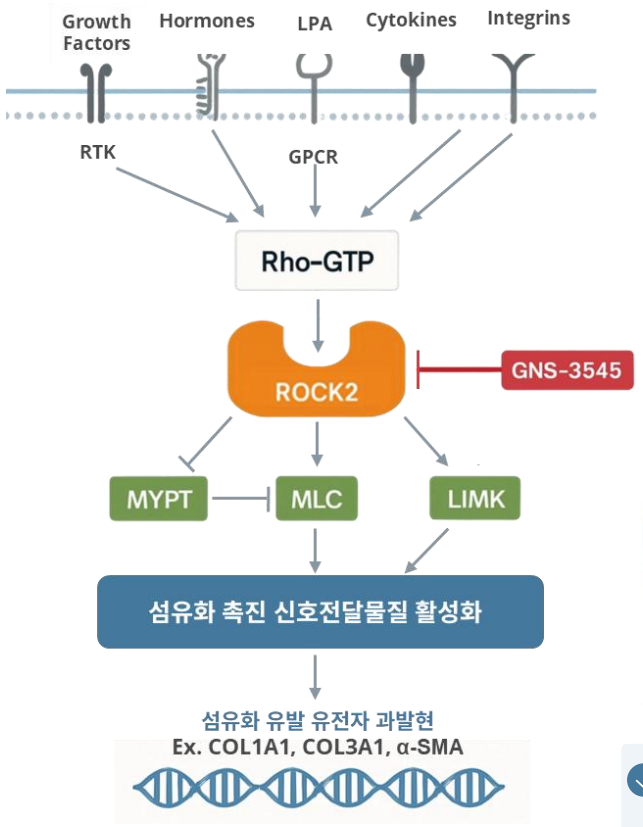


폐질환(IPF) 모델: Bleomycin-indu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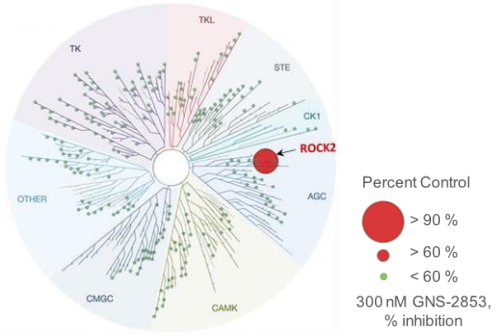


GNS-3545 | First-in-Class ROCK2 억제 IPF 치료제 임상 1상 연구 수행 중

ROCK2: 폐섬유화 원인 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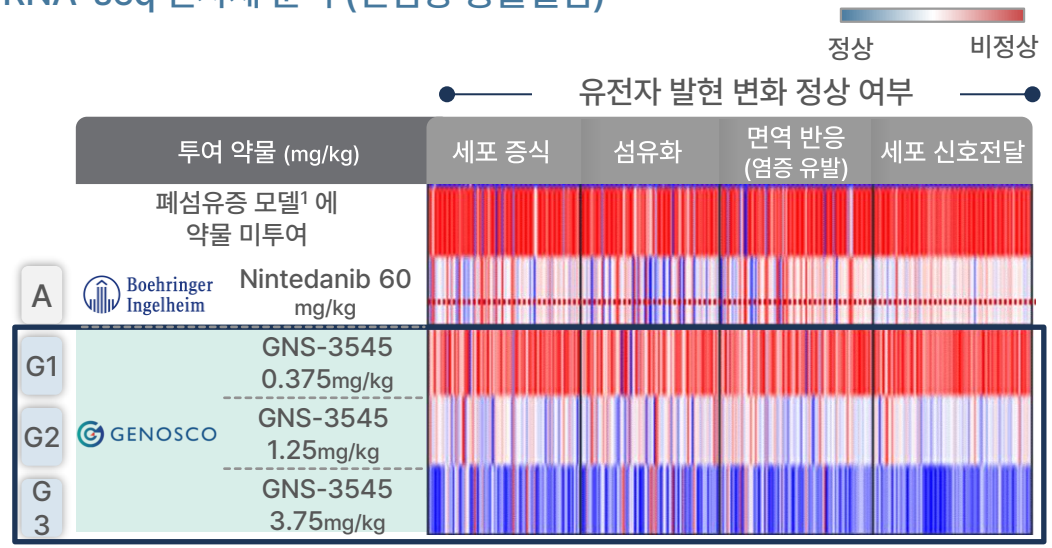
- Rho-GTP에 의해 활성화 되는 ROCK
  - 특발성 폐 섬유증과 관련된 다양한 세포 신호전달 체계에 관여
  - ROCK2 활성의 억제는 폐 섬유증에 대해 유망한 치료전략으로 기대



- 뛰어난 억제효능과 **강력한 선택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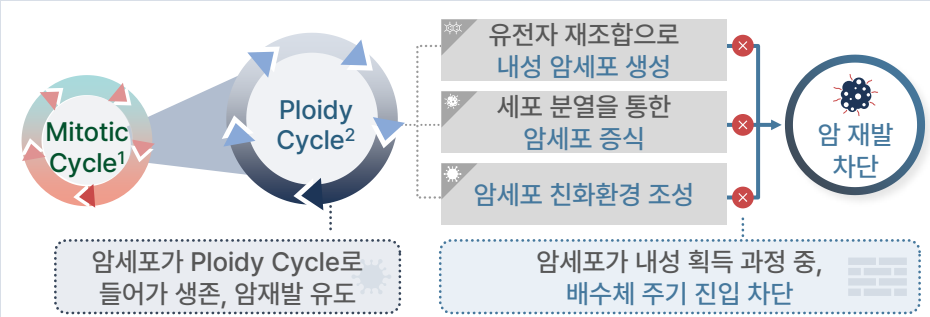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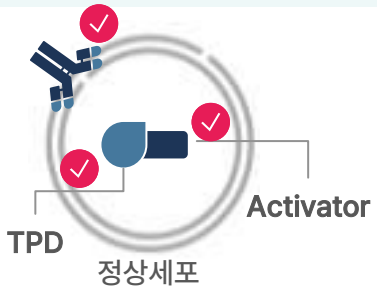
폐 섬유증 관련 유전자 변화를 정상으로 되돌려 폐 기능 회복 가능성이 표준 치료제 대비 높음

RNA-seq 전사체 분석 (전임상 동물실험)



- GNS-3545는 투여량을 늘릴 수록 폐섬유증 관련 유전자 발현 패턴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우수함을 증명
- 폐섬유증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를 정상세포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 Nintedanib (기존 폐섬유증 표준 치료제) 보다 더 강력한 효과

중장기 파이프라인 개요 | 항내성항암제 & DAC 분야 공략 혁신 항암제 선도기업 도약

	항내성항암제 (ACART)	Degrader-Antibody Conjugate (DAC)
차별점		3중 안전장치: 1단계: 정상세포 유입 차단 2단계: 비표적 단백질 작용 차단 3단계: TPD 활성화 차단 
포트폴리오 의미	암세포의 치료제 내성 획득 근본 원인을 차단해 재발 억제, 기존 항암제의 효용성 한계를 해결 고위험·고수익의 암종 및 타겟 확장 가능한 시장 기회 선점	3단계 안전장치로 정상세포에서 작용하지 않는 기전 독성 최소화 (기존 ADC부작용 한계 극복) 골격별 우수 Payload 라이브러리 및 검증된 기술 기반 초기 공동개발 통한 빠른 L/O 수익화 지향
현재 파이프라인	현재 임상 1상 단계 1건 (OCT-598) & 다수 과제 진행 중 (ONC1, ONC2, ONC3); 조기 L/O 가능 FIC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약효 유도 & 안정성 강화 FIC: DAC1, DAC2, DAC3, PKMY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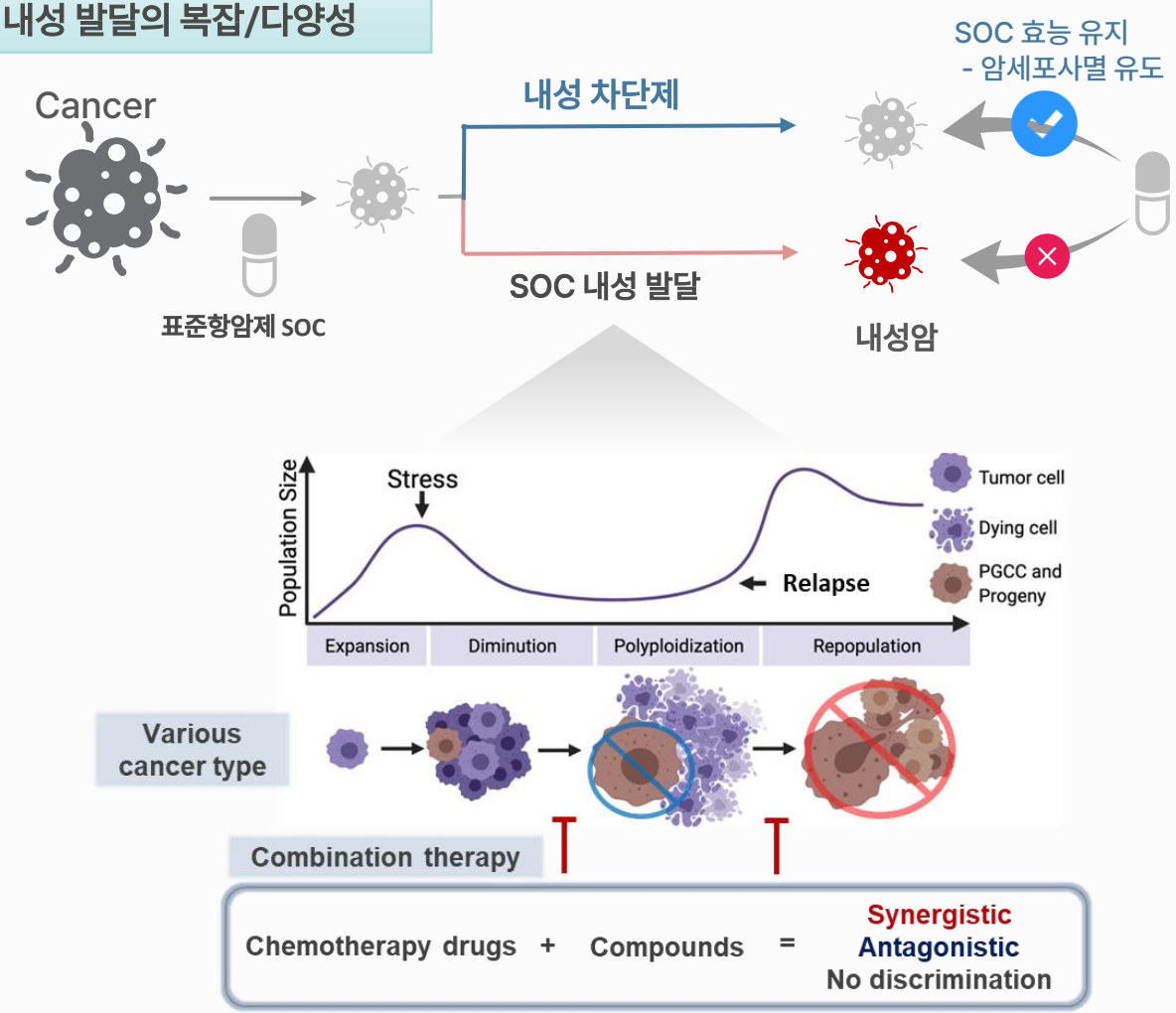
ACART = 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1. Mitotic Cycle = 정상 세포 분열 주기.암세포는 항암제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면 이 주기가 아닌 Ploidy cycle로 이탈해 생존을 시도함; 2. Ploidy Cycle =암세포가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생존·진화 및 내성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배수성 순환 메커니즘

OCT-598 | ACART(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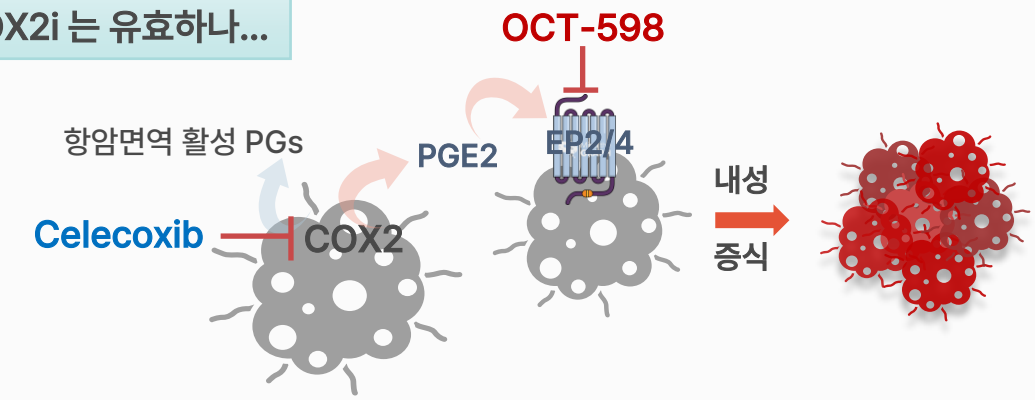
미래 ACART의 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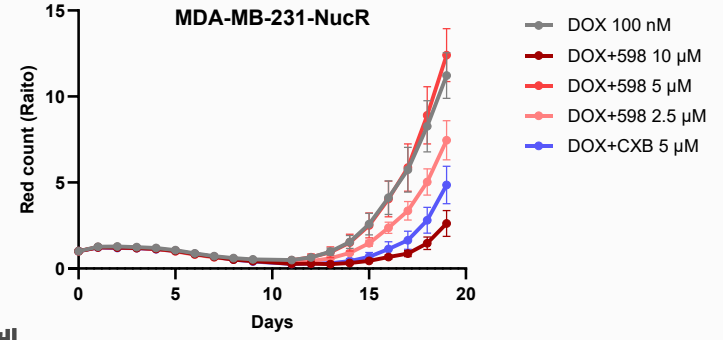
미완의 성공으로 남은 항내성제 병용 항암요법 분야 - 항암 의료계 최대의 숙제
효능과 안전성 향상된 OCT-598/SOC 병용으로 글로벌 리더 영역 확보

내성 발달의 복잡/다양성



COX2i 는 유효하나...





COX2 저해제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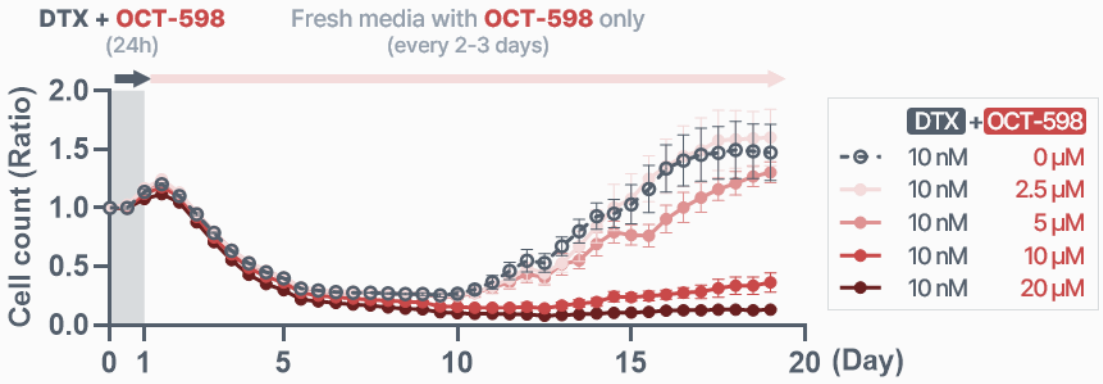
- 긍정/부정적 기전 혼재 – 임상 효능 한계 명확
- 심혈관계 위험 – 용량 제한, 장기 투여 불가

→ EP2/4 길목 차단 기전의 OCT-598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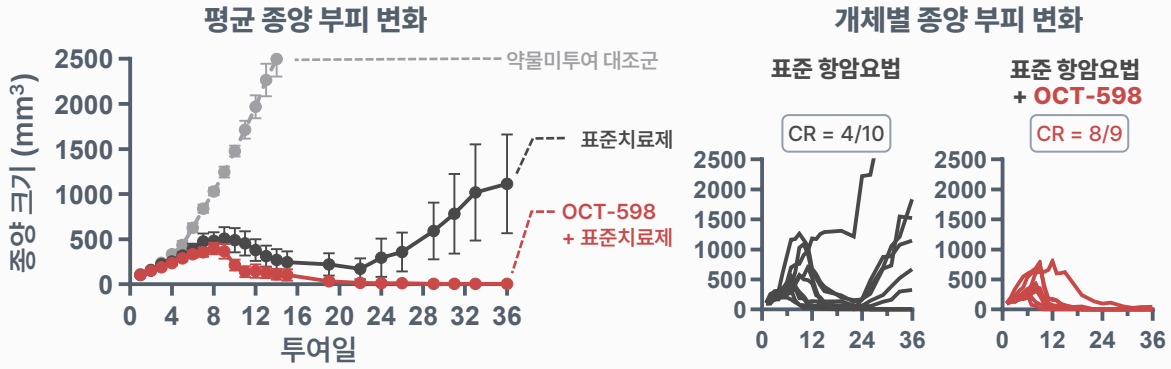
OCT-598 | EP2/4 이중 저해제 – 항내성항암제 개념증명 임상개발

다양한 비임상 모델에서 표준요법과 병용 시 내성 발현 억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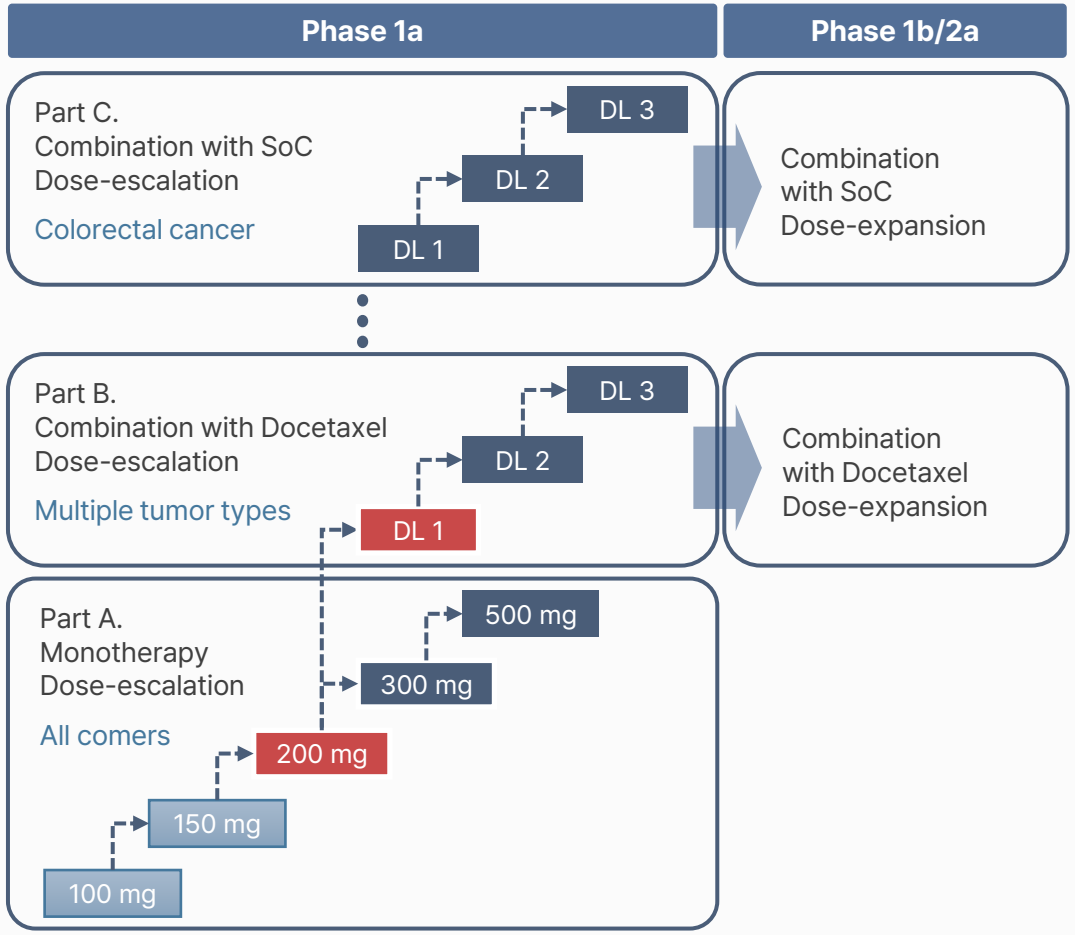
화학항암제(도세탁셀) 병용 처리 시 암세포주의 재증식을 억제



마우스 폐암모델에서 표준 항암요법 병용 시 종양의 재발을 차단



임상1상 단독 및 병용요법 진행 중 → 대장암 효능 확인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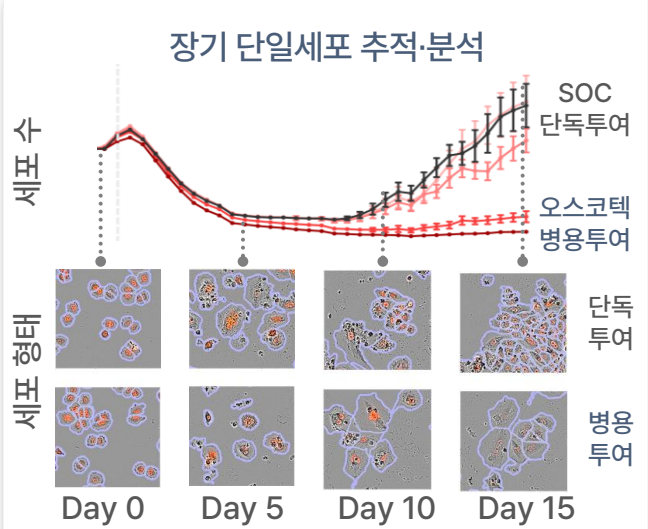
Source: 회사 자료

DTX, Docetaxel(도세탁셀); CR, Complete regression(종양 완전 소실); SoC, Standard-of-care(표준 항암요법), DL, Dose level(용량 단계)

ACART 인프라 | 연속 이미지 기반 내성특화 Discovery 플랫폼 구축

ACART[1] Discovery 플랫폼의 이미지 기반 세포 추적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내성 기전 표적 Hit & Target pair를 발굴하여 파이프라인 확장 역량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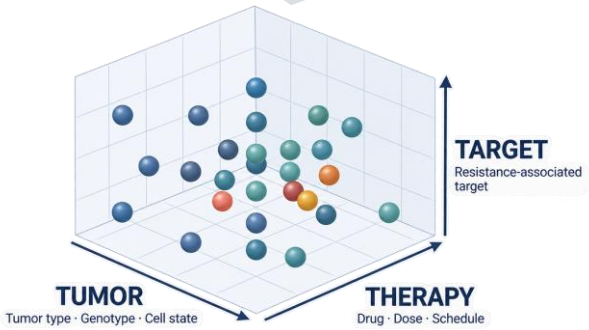
RIVENDELL | AI 기반 이미지 스크리닝 플랫폼



단일세포 정밀 분석 및 대규모 스크리닝을 통한 항내성 후보물질 발굴

T[3] | 암종x치료제x타깃 다차원 분석

치료조건과 타깃을 고려한 최적의 hit 선별



암종·치료제·타깃 정보를 종합하여 적응증별 최적의 치료 전략 도출

확보 파이프라인 : ONC1(Lead Opt), ONC2, ONC3 (H2L)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 과정의 효율화 및 유망 타깃 발굴 역량 강화

운영 효율화

기존 제약사들은 Hit 발굴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

- 타겟 확보 이후 Hit 발굴 과정에서 평균 20억원의 비용 발생
- Hit 탐색 및 검증에 1-3년의 기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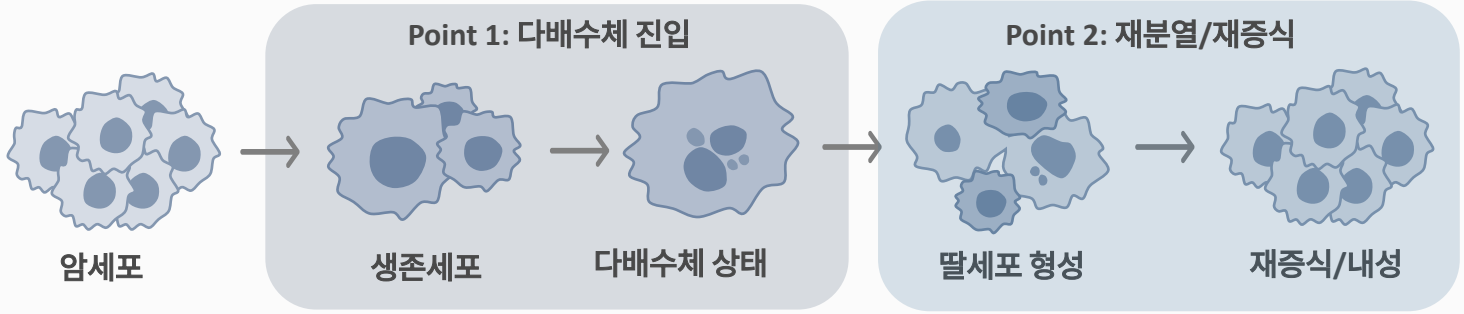
당사는 Hit 탐색 단계 생략을 통해 개발 비용 약 20억원 및 개발 기간 ~2년 절감

타겟 적합도 향상

생물학적 타당성	암세포의 내성 발현 기전을 in vitro 에서 재현하여 후보물질의 표적 기전 작용 검증
타겟 적합성	여러 물질 중 내성 발현 억제 능력이 가장 우수한 물질 선별
효능 검증	후보 물질의 내성 발현 억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물질의 효능을 정밀하게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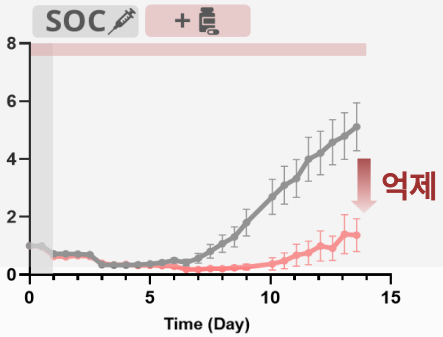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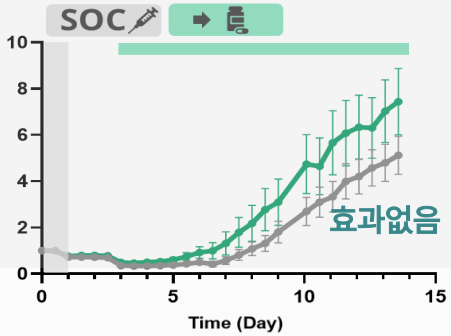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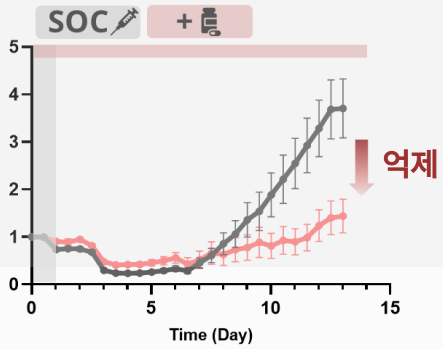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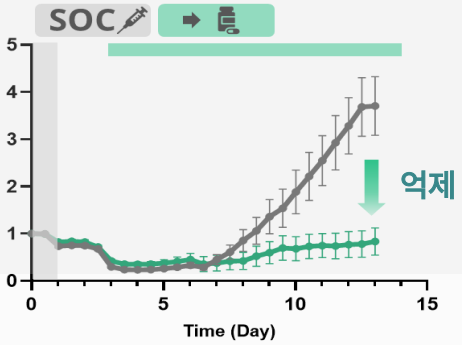
1. Anti-Cancer Anti-Resistance Therapy, Source: 회사 자료

ACART 과제 | 내성특화 플랫폼 기반 과제 창출



Oscotec ACART 플랫폼의 압도적 기술 우위

- 암세포 내성 발달 기전 단계 이미지 기반 데이터베이스
- 머신 러닝을 통한 AI 활용 스크리닝 모델
- 표준항암제 맞춤형 내성 억제 전략 개발

후보물질	초기 처리 조건	후기 처리 조건
ONC1 초기 조건에서 재증식 억제		
ONC2 초기, 후기 조건 모두에서 작용		

- 암종과 SOC에 따라 내성 발달 기전이 다르고 신약 타깃 단백질 다양함
- SOC 맞춤형 항암 내성 극복 병용 치료제 개발 필요성 증명
- ONC1-ONC2-ONC3 를 이어 항내성 항암제 개발 가속화
- 개발 일정: 전임상개발 진입 ONC1 4Q '26, ONC2 3Q '27
- 임상1상 진입 전에 기술이전 목표

차세대 DAC | 기존 ADC의 unmet needs를 충족 및 내성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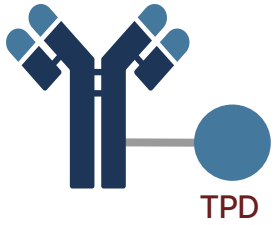
기존 ADC는 여전히 화학요법 약물을 사용하여 심각한 부작용 초래. 최대 투약 용량에 한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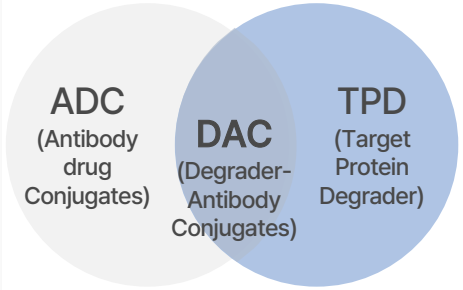
비선택적 화학약물 기반 ADC

	화학약물 (기존 항암제)	ADC
작용 방식	분열이 빠른 세포를 무차별 공격하여 암세포 사멸 유도	항체가 암세포를 타겟하여 약물을 선택적으로 전달
구조	 단독 화학약물	 항체 (Antibody) Linker 화학약물
단점	화학요법 치료 시 80% 이상은 탈모 20% 이상은 패혈증 발생 중증 부작용의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 존재 강한 항암효과 위해 약물 증량 시 중증 부작용 발생 급증 → 최대 투약 용량에 한계	기존 항암제와 동일한 기전의 화학요법 약물 사용 → ORR (객관적 반응률)은 개선, 화학요법 수준의 부작용으로 최대 투약 용량 제한 **→ 내성 문제 및 안구독성 등의 안전성 이슈로 신규 기전의 차세대 Payload 필요성 증대**

DAC는 ADC의 화학약물을 표적 단백질 분해제 (TPD)로 대체해 안전성 향상 및 내성문제 해결

DAC 개념도





DAC 장점

우수한 안전성

- 암세포 증식 핵심 단백질 선택적 분해를 통한 항암효과 및 부작용 최소화
- 기존 TPD 약물의 전신노출과 달리 항체를 통한 암세포에 표적 배달→ 안전성 확대

용량 대비 약효 우수

- TPD는 촉매로 작용하여 표적 단백질의 지속적 분해를 통해 암세포 사멸 유도
- 저용량으로도 높은 약효 기대 가능

ADC 내성 환자를 위한 신규 치료옵션

- 기존 ADC Payloads인 화학약물과 다른 MOA로 화학약물 내성 암세포에 우수한 효능

1. 세포의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하는 단백질로, 암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 단백질 중 하나이나 기존 약물로는 잡기 어려웠던 대표적 undruggable 타깃

Source: 회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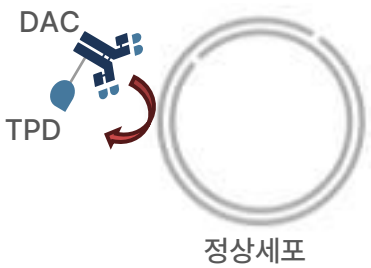
Triple-Lock 기술 DAC | 1세대 DAC의 미충족 안전성 영역 확보

DAC의 부작용 발생 차단 기술

1세대 DAC Dual targeting

제노스코 Triple-lock
3중 안전장치

1단계 (정상세포 유입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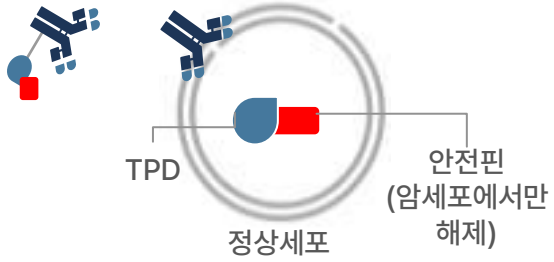
- 항체가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에 결합
  → DAC의 정상세포 유입 방지

2단계 (비표적 단백질 작용 차단)



- DAC의 정상세포 유입 시에도 TPD는 표적 단백질만을 분해
  → TPD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음[1]
- 다만 활성화 시 비표적독성[2] 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존재

3단계 (TPD 활성화 제어)



- TPD 탑재약물(payload)의 활성을 봉인하고 암세포 내에서만 해제되는 안전핀을 부착
  → 정상세포 내에서는 해제가 되지 않아 부작용 발생 추가 방지

- 제노스코의 차세대 DAC는 1세대 DAC과 달리 탑재약물이 암세포에서만 작용하도록 하는 안전핀을 부착하여, 정상세포에서의 부작용(비표적독성) 부담을 대폭 축소
- 정상세포 내 DAC의 TPD 약물 작용 가능성을 3중 안전장치 "Triple-lock" 기술을 통한 기존 DAC 대비 안전성 추가 제고

1. ADC의 payload인 화학약물(Cytotoxin)과 비교 시 독성을 띠지 않음; 2. 약물이 의도하지 않은 표적(단백질)과 결합하여 작용 시 발생하는 독성;
Source: 회사 자료

향후 전망 | 현재 4개의 파이프라인 보유. 2028년 이후 L/O 목표

사업 모델

파이프라인 L/O

DAC 후보물질

탑재약물 - linker - 항체

- 당사는 개발 물질을 전임상 ~ IND[1] 시점 L/O
- 1~3상 임상은 파트너사가 진행

기술 플랫폼 L/O

DAC 탑재약물 플랫폼

라이브러리 A B C D ··· + 검증 프로세스

- 당사는 플랫폼 제공
- 파트너사는 플랫폼 상 탑재약물 기반 DAC 연구개발 진행

- 전임상 ~ IND 승인 시점 **조기 L/O 고려**
- **파이프라인 & 기술 플랫폼 모두** L/O 고려

보유 파이프라인

	적응증	Modality	현 개발 단계	라이선스 아웃 목표 시점	잠재 파트너사
DAC1	TNBC	DAC-TPD	DAC Optimization[2]	2028년 이후	글로벌 바이오텍과 논의 중
DAC2	SCLC				
DAC3	Prostate Cancer/ HCC				글로벌 MNC 고려 중
PKMYT1	Ovarian Cancer, Pancreatic Cancer	Degrader	Degrader Optimization		글로벌 바이오텍 고려 중
⋮	GENO-D 플랫폼을 통한 자체 R&D로 추가 파이프라인 지속 확보 계획				

현 보유 파이프라인은 2028년 이후 L/O를 목표로 하며, 플랫폼 L/O 또한 고려 중
GENO-D 플랫폼을 활용, 우수 후보물질을 도출해 추가 파이프라인 확보 계획

1. Investigational New Drug로 FDA에 제출하는 임상 1상 승인 신청서; 2. DAC의 탑재약물 후보물질이 최적화 완료된 상황에서 다른 DAC 구성 요소인 항체 (특정 암세포 타겟 가능)와 Linker (탑재약물과 항체를 연결)와 조합을 최적화 하는 단계
Source: 회사자료

Agenda

1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원칙 및 주주가치 제고

3 2026년 3분기 실적

Appendix

자본 배분 정책 지향점 | 충분한 R&D 투자와 재무규율을 병행해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1 재무적 Self-Sustainability 강화

Lazertinib 로열티와 글로벌 L/O 성과, 현금여력을 기반으로 재무적 자립 달성 및 핵심 R&D 안정적 수행

연구비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의존도를 낮추고, 파이프라인 우선순위와 투자규율을 유지하며 손익·현금흐름을 균형 있게 관리



2 R&D 투자 2배 증가로 성장모멘텀 가속화

과거 3개년 대비 향후 3개년 R&D 투자는 보수적 수익 전망 기준으로도 2배 이상 확대,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

레이저티닙 로열티가 당사 보수적 추정치 대비 상회하거나, 추가 L/O 성과 창출 시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공동연구 등 성장투자 여력 확대

미래 자본 배분 계획

2026~2028 Cash flow 배분 로드맵

Cash Inflow

Cash outflow

1,857억원

+ α
수익

Lazertinib 매출 업사이드,
중단기 파이프라인
(GNS-3545, OCT-648,
OCT-598 등)
L/O 시 현금유입분

① Core R&D
: 핵심 임상·전임상 개발

추가 현금 유입 시 성장투자 여력 확대
② External Innovation: L/I·공동연구·공동개발
③ Strategic Capital Allocation: 전략적 투자
및 사업구조 관련 기회

+ α
성장투자

④ Financial
Reserve

3Q26 유동성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금융자산)

향후
경상기술료 및
L/O 수익

추가 L/O 등 + α

가용현금

R&D 투자

R&D 이외 판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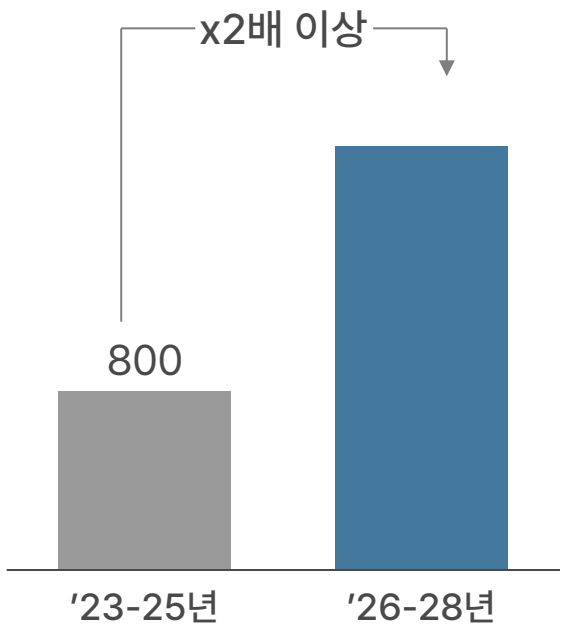
추가 성장투자

2028년 말
적정 유동성 유지

R&D 투자 로드맵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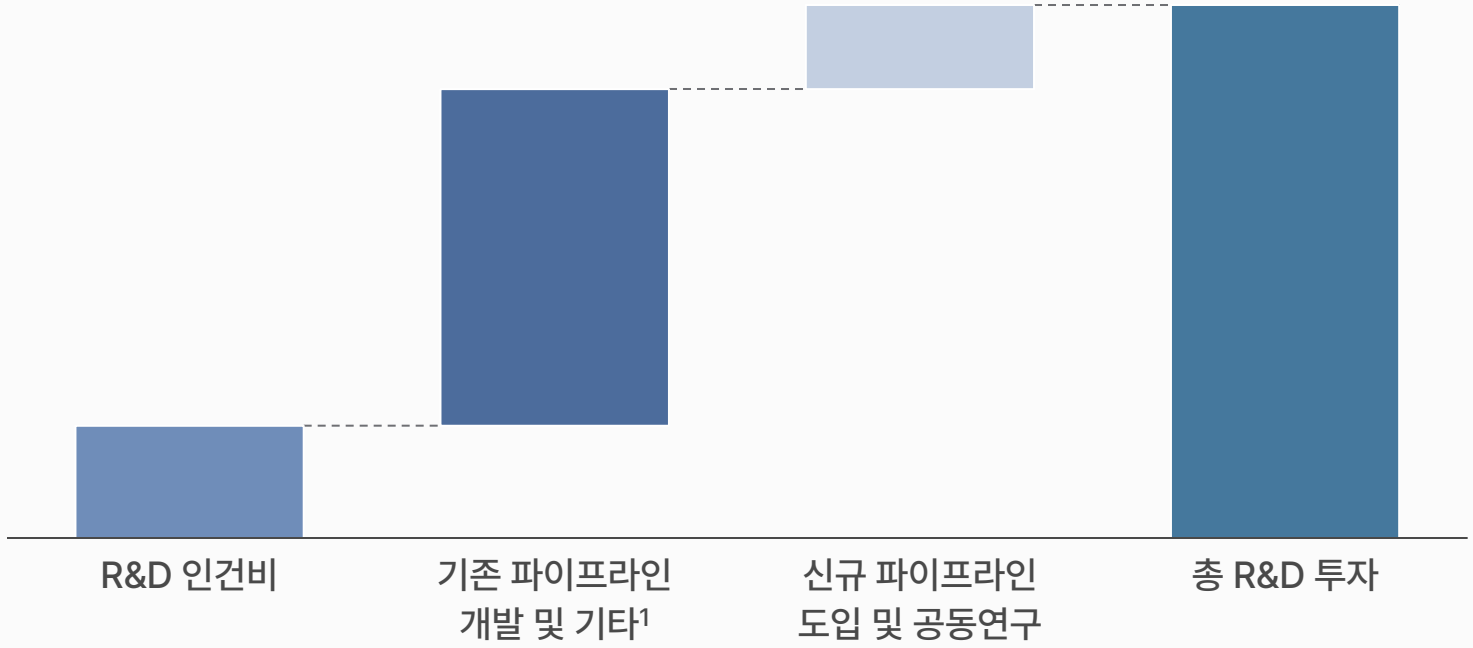
3개년 누적 R&D 투자

(단위: 억 원)



1. 파이프라인 자문비, 장비, Supplies, S/W 구독비 등 기타 비용
주: 3Q26 누적 R&D 235억원, +32.5% YoY

R&D 투자 세부 (2026E-2028E 누적)



※ 실제 투자 집행은 각 파이프라인의 개발진척도, 임상·비임상 데이터, 경쟁환경 및 사업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조정

주주가치 제고 핵심 내용

1 거버넌스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 강화로
'투명하고 견제 가능한 구조' 구축

- 독립이사 과반 확보 추진, 이사회를 "주요 경영 판단" 중심으로 전환
-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독립이사 중심 특별위원회 신설로 견제·감독 기능 강화

2 보상 체계

성과 중심·주주가치 중심의
인센티브로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체계 구축

- 기본급 초과 보상은 성과달성 조건부 (스톡옵션·현금보너스·RSU 등)로 설계
- 장기 베스팅 기반의 주식 보상으로 경영진과 주주의 장기 이해관계 일치

3 시장 소통

기관·개인투자자를 아우르는
폭넓은 IR로 '열린 기업' 구축

- Investor Day·R&D Day 정례화, 해외 기관 대상 타겟형 NDR 추진
- 주주서한 등 경영진 직접 소통 채널 도입 추진, 학회·KOL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Agenda

1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원칙 및 주주가치 제고

3 2026년 3분기 실적

Appendix

2026년 3분기 실적 (연결기준)

- 3분기 누적 매출액 628.7억원(YoY +200.8%). 세비도플레닙(아지오스) 계약금 등 기술이전 수익 510.6억원과 레이저티닙 경상기술료 95.3억원(YoY +76.6%)이 성장 견인
- 누적 영업이익 220.0억원으로 흑자전환(전년 동기 영업손실 93.3억원). R&D 투자 확대(YoY +32.5%)에도 경상기술료 증가와 기술이전 수익으로 이익 시현
  기술이전·마일스톤은 인식 시점에 따라 분기별 손익 변동 가능
- 9월말 유동성 1,857.3억원(전년말 대비 +776.4억원), 순현금 1,689.5억원, 부채비율 19.6%

(단위: 억원)

손익계산서	2026.1~3Q	2025.1~3Q	YoY
매출액	628.7	209.0	+200.8%
매출총이익	614.9	195.1	+215.1%
영업이익(영업손실)	220.0	(93.3)	흑자전환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60.4	(96.2)	흑자전환
재무상태표	**2026.09**	**2025.12**	**증감**
유동성(현금+금융자산)	1,857.3	1,080.9	+71.8%
차입금	167.8	154.9	+8.4%
순현금	1,689.5	926.0	순현금 확대
부채비율	19.6%	23.0%	-3.4%p

(단위: 억원)

매출 상세내역	2026.1~3Q	2025.1~3Q	YoY
로열티 수익	95.3	53.9	+76.6%
기술이전 수익 (계약금, 마일스톤)	510.6	131.4	+288.7%
기타 수익[1)]	22.7	23.7	-3.9%
합계	628.7	209.0	+200.8%

주1: 기능성 소재, 치과용 이식재 사업

주1: 차입금은 단기차입금 및 전환사채 장부금액 합계
주2: 영업이익과 순이익 차이(59.6억원)는 주로 달러화 표시 자산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실(92.0억원) 등 영업외손익 반영에 기인

주요 라이선스 성과 및 경상기술료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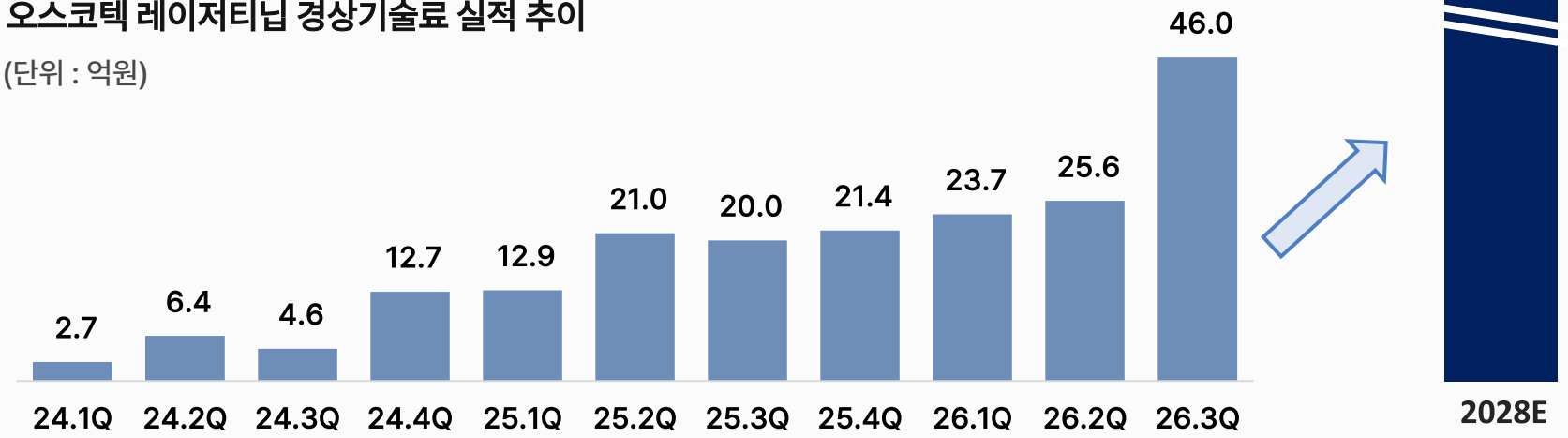
Johnson & Johnson 2027~2028년 매출전망치 상향

(2027년 18억 달러 → 36억 달러, 2028년 23억 달러 → 46억 달러)

- 전체 생존기간 (OS) 표준치료제 (Tagrisso) 대비 1년 이상 연장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승인 완료 (미국, 일본, 중국 투약 완료)
-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SC) 제형 유럽 및 미국 승인 완료
  - 2025년 4월 유럽 (EU), 12월 미국 (US)
- 2026.7 영구 J-code 적용 (보험청구 및 환급 인프라 구축)

오스코텍 레이저티닙 경상기술료 실적 추이

(단위 : 억원)



주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ADEL-Y01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물질)

계약상대방: 사노피(Sanofi) **계약체결일:** 2025.12.16

전 세계 독점 판매권 및 공급계약

계약금(Upfront) **1,180억원**
(오스코텍 귀속 553억원)

전체 계약규모 **최대 1조 5,300억원**

오스코텍 배분 비율 47%

세비도플레닙(SKI-O-703)

(SYK 억제제, 자가면역질환)

계약상대방: 아지오스(Agios) **계약체결일:** 2026.06.01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 계약

계약금(Upfront) **375억원**

총 계약규모 **최대 9,996억원**

오스코텍 배분 비율 75%

Agenda

1 R&D 전략 방향

2 자본 배분 원칙 및 주주가치 제고

3 2026년 3분기 실적

Appendix

회사 현황 | 국내 최초 美FDA 승인 항암제 개발사로 韓·美 양국에서 후속 신약 개발 중

연혁

1998년 – 오스코텍 설립
2007년 – 오스코텍 코스닥 상장
2014년 – 원천기술 (GENO-K) 활용 Lazertinib 개발
2015년 – Lazertinib (GNS-1480) 유한양행에 라이선스 아웃
2020년 –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 (ADEL-Y01) 공동연구 계약
2024년 – Lazertinib 국내 항암제 최초 미국 FDA 승인
2025년 – ADEL-Y01 사노피에 라이선스 아웃
2026년 – Cevidoplenib 아지오스에 라이선스 아웃

주요 사업

신약 연구개발 (항암제, 섬유화질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주요 성과

Lazertinib (GNS-1480) 기술 수출 (유한양행, 유한양행 → 얀센)
Lazertinib 국내 항암제 최초 미국 FDA 승인 획득
ADEL-Y01 기술 수출 (공동연구 계약, 아델 → 사노피)
Cevidoplenib 기술 수출 (아지오스)

주요 파이프라인

- 폐 섬유화 표적치료제 (GNS-3545)
- 신장 섬유화 표적치료제 (OCT-648)
- 항내성 항암제 (OCT-598, ONC1~3)
- DAC 항체-분해약물 접합체 (DAC1~3)

임직원 수

- 오스코텍 - 66명 (R&D 인력 44명)
- 제노스코 – 34명 (R&D 인력 20명)

주요 사업장 소재지



Oscotec Inc.



GENOSCO



성장 Story | 신약개발 역량 및 Lazertinib의 안정적 수익 기반, 다음 단계로 도약 준비

현 단계

	1단계 1998-2014	2단계 2015-2025	3단계 2026년 이후
	신약 개발을 위한 기본 인프라/역량 구축	Lazertinib을 통한 글로벌 track record 확보 및 파이프라인 확대	Financial Self-sustainability 달성 & 차세대 항암 패러다임 선도

'98 '00 '07 '09 '14 '15 '18 '20 '21 '22 '24 '25 '26

주요 파이프라인/개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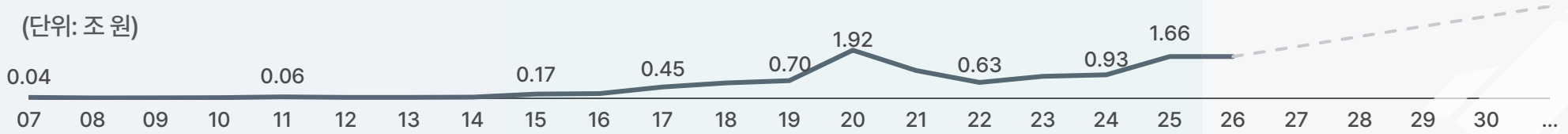
- '09 Kinase 저해제[1] GENO-K 원천 기술 라이브러리 구축 시작
- '14 GENO-K 활용 Lazertinib 원천 기술 개발
- '15 Lazertinib L/O → 유한양행
- '18 Lazertinib L/O 유한양행 → 얀센
- '20 치매치료 항체 공동연구 계약 (아델)
- '21 Lazertinib 국내 식약처승인
- '21 DAC[2] 플랫폼 GENO-D 개발 착수
- '22 항내성항암제 개발 착수
- '24 Lazertinib 국내 항암제 최초 美FDA승인
- '25 ADEL-Y01 L/O → 사노피
- '26 Cevidoplenib L/O →Agios

주요 운영상 변화

- '98 오스코텍 설립 (前 오스텍)
- '00 제노스코 설립 (前 OCT USA)
- '07 오스코텍 코스닥 상장
- '20 윤태영 사장 각자 대표이사 취임

기말 시가총액 추이

(단위: 조 원)



차세대 항암제인 항내성항암제 및 DAC 중심 파이프라인 개발

1-2년 마다 1개 이상의 L/O를 목표로 하여 R&D 재원 확보 및 재무적 Self-sustainability 강화

1. Kinase는 단백질에 인산기를 전달하여 신호를 활성화하는 단백질 효소이며, Kinase 저해제는 세포 신호 전달을 막아 염증,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 활용됨;
2. Degrader-Antibody Conjugates

2026년 3분기 재무제표 (연결기준)

(단위 : 원)

손익계산서	2026.1~3Q	2025.1~3Q
I. 매출액	**62,865,768,623**	**20,898,656,287**
II. 매출원가	1,376,762,738	1,385,975,845
III. 매출총이익	61,489,005,885	19,512,680,442
- 판매비와 관리비	39,493,412,252	28,840,307,592
IV. 영업이익(손실)	**21,995,593,633**	**(9,327,627,150)**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6,040,543,773	(9,464,150,791)
VI. 3분기순이익(손실)	**16,040,543,773**	**(9,622,775,018)**

(단위 : 원)

재무상태표	2026.09	2025.12
I. 유동자산	**211,355,330,128**	**198,957,801,70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2,143,641,047	15,192,017,092
2. 기타금융자산	163,589,246,427	92,895,195,996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2,593,329,672	87,640,705,644
4. 재고자산	2,083,136,408	1,815,145,309
5. 법인세자산	358,984,830	519,865,390
6. 기타유동자산	586,991,744	894,872,274
II. 비유동자산	**31,220,493,318**	**30,895,399,171**
1. 투자부동산	6,791,000,804	10,978,910,718
2. 유형자산	23,345,344,016	19,053,069,608
3. 무형자산	540,328,620	555,525,333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96,812,108	171,042,108
5. 사용권자산	347,007,770	136,851,404
자 산 총 계	**242,575,823,446**	**229,853,200,876**
I. 유동부채	**35,229,118,709**	**38,975,969,509**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938,682,780	11,946,177,909
2. 단기차입금	6,000,000,000	6,000,000,000
3. 기타금융부채	20,550,491,914	18,966,971,031
4. 기타유동부채	3,625,421,817	1,979,340,891
5. 유동리스부채	114,522,198	83,479,678
II. 비유동부채	**4,595,207,189**	**4,029,651,925**
1. 순확정급여부채	2,381,864,621	1,992,779,999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041,959,998	1,042,097,776
3. 이연법인세부채	945,546,136	945,546,136
4. 비유동리스부채	225,836,434	49,228,014
부 채 총 계	**39,824,325,898**	**43,005,621,434**
1. 자본금	19,129,088,000	19,129,088,000
2. 자본잉여금	244,916,146,385	244,863,485,234
3. 기타자본구성요소	7,603,039,864	8,169,967,502
4. 이익잉여금	(74,835,117,578)	(90,855,131,694)
5. 비지배지분	5,938,340,877	5,540,170,400
자 본 총 계	**202,751,497,548**	**186,847,579,442**
부채 및 자본 총계	**242,575,823,446**	**229,853,200,876**

Oscotec Inc.

Translating Science into Medicine

Oscotec Inc.